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공계 ICT 여성인력 양성추진 정책

이부형\*, \*\* · 송은지\*\*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남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학과

### 목 차

|                             |                       |
|-----------------------------|-----------------------|
| I. 서론                       | IV. 여성공학인력 양성 정책 및 현황 |
| II. 여성과 ICT                 | V. 결론                 |
| III. 국내·외 ICT 부문 여성인력 고용 현황 |                       |

### I. 서론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성장과 고용이 정체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래 성장동력의 상실, 저성장의 위기, 실업을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장과 복지를 위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1].

창조경제란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 또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ICT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ICT 부문은 창조경제의 특징과 주요 요소를 잘 갖추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창조경제의 핵심요소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는 지식생태계, 인적자본, 기업가 정신, 창업환경, 사회적 자본 등을 갖추어 창조와 혁신이 일상화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창조경제의 제반요소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ICT는 이러한 제반요소를 강화, 보완 시키는 핵심동력으로 작용한다. ICT 부문은 그 자체가 지식·아이디어의 생성과 확산, 창업, 성장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

야에서 기술·산업간 융합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조경제에서 요구되는 인적자본을 갖춘 인재, 즉, 첨단 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은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국가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재를 확보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섭과 융합이 대세인 창조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ICT 부문이 여성의 풍부하고 섬세한 사고와 만날 수 있도록 여성인재의 육성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T 분야에 여성참여의 필요성, ICT 관련 여성인력의 공급현황 및 이공계 여성인력양성정책 및 ICT 인력 양성 추진현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II. 여성과 ICT

#### 2.1. 창조경제에서의 ICT의 정의 및 역할

ICT는 Informati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로 정보기술을 아우르는 컴퓨터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관련 장비 및 부품을 망라하고 있으며 인터넷, 휴대전화 등의 보급을 통해 통신의 기능 및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창조사회에서 ICT는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경제사회 전역에 투입되어 새로운 서비스

를 창출하는 핵심동력으로 강조되고 있다.

2014년 4월 23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의결된 국가중점 과학기술 전략로드맵에서도 ICT를 융합의 촉매제로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시장을 창출하면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기위한 5대 분야 30개 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전략을 확정한다 있다. ICT부문은 그 자체가 지식·아이디어의 생성과 확산, 창업, 성장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산업간 융합의 핵심요소임이 분명하다.

## 2.2. 국제사회에서의 여성과 ICT

여성과 ICT에 대한 논의는 정보사회의 취약계층으로서의 여성이 “접근성(Access)” 확보에서 ICT 분야의 여성고용확대, 나아가 ICT 분야에서의 여성의 권한강화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최빈국이나 저개발 국가에서는 아직 접근성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선진국이나 선발개도국의 경우는 ICT의 확산과 여성의 높은 ICT활용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ICT 분야 경제활동에의 참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가 국가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드 중 맥켄지 컨설팅은 미국의 경제성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골드만 삭스는 여성 경제 활동 참여의 증대와 성장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여성의 유급 고용이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증대될 경우, 미국의 GDP 9%, 유럽은 13%, 일본은 16%로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하였다[2].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s Forum:WEF)의 글로벌 성 격차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성별격차와 국가 경쟁력이 높은 상관관계르 보인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및 스웨덴의 경우처럼 성평등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1인당 GDP 30000불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이 정보통신 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신기술 및 환경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격차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ICT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육체노동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여성에게 고용기회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며

ICT가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가 여성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ITU에서는 의사결정자 수준의 여성의 진출확대와 어린 시절부터 여성과 여학생의 ICT 부분 참여 증진을 위해서 정책, 교육, 고용차원에서의 고려를 장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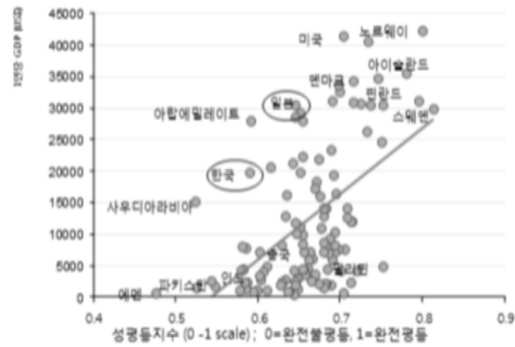


그림 1. 성평등지수에 따fms GDP의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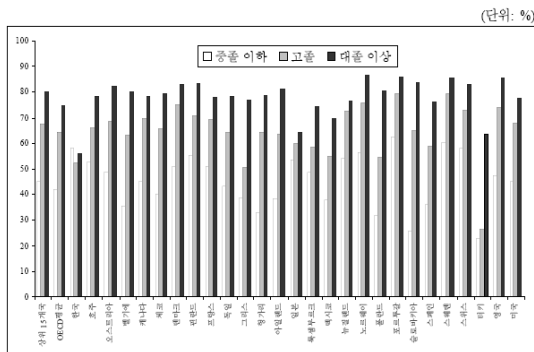
## 2.3. 한국에서의 여성과 ICT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세계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의 성공적인 정보화의 추진으로 정보통신의 이용 및 활용면에서의 격차는 크지 않은 편이나, 경제활동 참여라는 측면과 특히 ICT를 포함한 기술영역 및 고위 의사결정직에 있어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중이 낮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ICT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육체노동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여성에게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ICT 산업이 지식 집약적이며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서 여성 참여 증대가 가져올 영향은 실로 막대할 것이다.

OECD는 2013년 고용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용율이 OECD 평균인 65%보다 0.8%p 낮은 64.2%이며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OECD 평균을 하회하는 여성고용율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고용율은 2012년 기준 53.5%로 OECD 평균 57.2%에 비해 3.7%낮은 상황이며, 특히 한국사회에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자 비

율은 35~64세 연령의 전체 여성 취업자 비율과 비교하여 낮은 형편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대졸 여성의 취업자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심지어 80~90%대에 있는 국가도 흔한 실정이지만 한국사회는 불과 55%에 머물고 있다. 그림 2는 OECD 국가 교육수준별 25~64세 여성 취업인구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2].



자료: OECD(2003), Employment Outlook 2005-Statistical Annex

그림 2. OECD국가 교육수준별 25~64세 여성 취업인구비율

미래사회는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로 특성화되는 바, 장차 절대 인구감소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생산부양인구의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의 기형적 변화는 대안 노동력 균으로서 여성노동력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고학력화와 여성자체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15세이상의 인구의 84.3%가 여성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불요불급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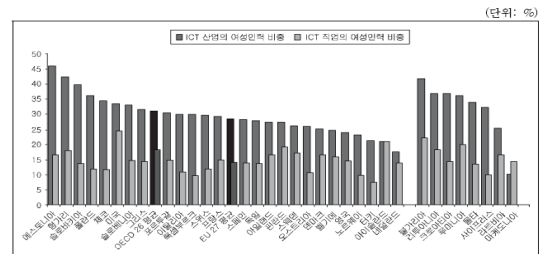
또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거의 모든 사회성원들은 일생동안 자기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에게도 '일'은 남성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의무이자 권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ICT 부분의 여성인력의 고용율 제고를 통해 잠재적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고용정책 및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III. 국내·외 ICT 부문 여성인력 고용현황

#### 3.1. OECD 국가의 ICT 부문 여성고용현황

그림 3은 OECD 국가의 산업 및 직업별 여성 ICT 인력의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OECD 26개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ICT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중 여성인력이 약 30% 종사하고 있으며 ICT 직업에 종사하는 인력중 여성인력이 약 18%수준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ICT 직업인력 중 여성인력의 비중이 약 25% 수준으로 비교 대상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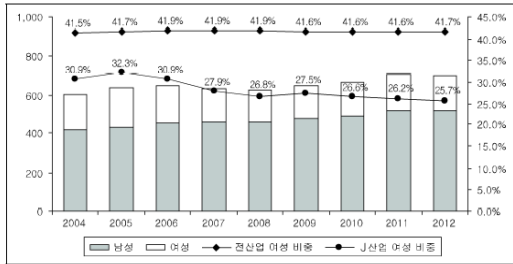
주: 1) 26개 OECD 국가에는 유럽 OECD 국가와 미국이 포함되며, 미국 및 마케도니아는 2005년 데이터 사용  
2) 분류기준의 차이로 비중에 대한 미국 및 유럽국가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함  
3) 유럽 국가들의 "ICT 산업"은 ISIC Rev.4 분류에 따른 26(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제조), 61(통신서비스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료 및 관련업), 63(정보서비스업)의 합으로 정의  
4) 유럽 국가들의 "ICT 전문가"는 ISCO88 분류에 따른 213(컴퓨터 전문가), 312(컴퓨터 준 전문가), 313(광학 및 전자설비 조작원), 724(전기 및 전자 장비 설치 및 정비원)의 합으로 정의  
자료: OECD(2012, 4)

그림 3. OECD 산업 및 직업별 여성 ICT인력비중

영국의 경우 전체 ICT 산업에서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미만으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재능있는 ICT 여성인력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Cisco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IT분야의 여성유망 인물을 발굴하여 수상하였으며 이들의 업적 및 경험에 대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여성들의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3.2. 국내 ICT 부문 여성인력의 고용규모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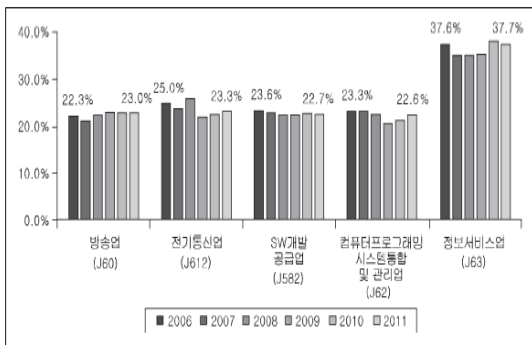
국내 전산업 취업자 중 여성인력의 비중은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따르면 2012년 기준 41.7%에 달한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J)의 경우 2012년 기준 종사자수는 약 70만명이며, 이 중 여성인력은 25.7% 수준인 18만명인 것으로 조사된다. (그림 4 참조)[3]



주: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을 기준으로 한 자료로, J58(출판업, J581 서적잡지 및 기타인쇄물출판업,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0 방송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ICT 여성인력의 고용규모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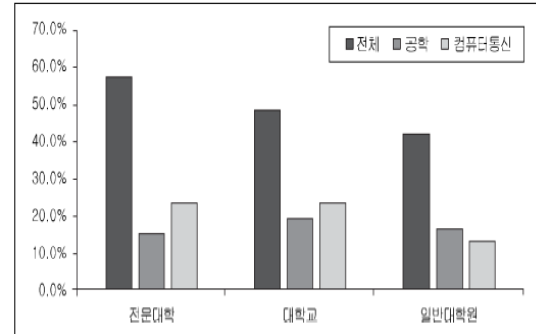
그림 5는 세부 산업별 여성인력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에서 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의 비중이 약 37.7%로 높은 가운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인력의 비중이 각각 22.7%, 22.6%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부 산업별 여성 인력의 비중은 방송업을 제외하고는 2006년 이후 다소 감소하거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5. 세부 산업별 여성인력 비중 및 추이

그림 6은 2012년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여성인력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ICT 산업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직 및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이 많다면 ICT 산업내 여성 인력비중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직업을 기준으로 여성 ICT전문가가 어느 정도로 분포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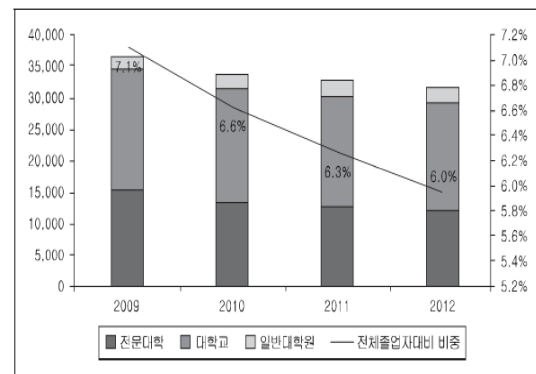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그림 6. 컴퓨터·통신 전공 졸업자 대비 여성인력 비중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종사자 직군에서 여성 인력 비중은 약 16.2% 수준이며, 전자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영상 및 통신장비관련 설치 및 수리원을 합한 경우 약 12.6%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6개국 평균치인 18.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그 비중이 2009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도 우려된다.

### 3.3. ICT 관련 여성인력 공급 현황

그림 7은 컴퓨터·통신 전공 졸업자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전문대학, 대학교, 일반대학원을 합한 전체 졸업자가 2009년 51.7만 명에서 13.3만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컴퓨터통신 전공 졸업자의 경우 약 4,87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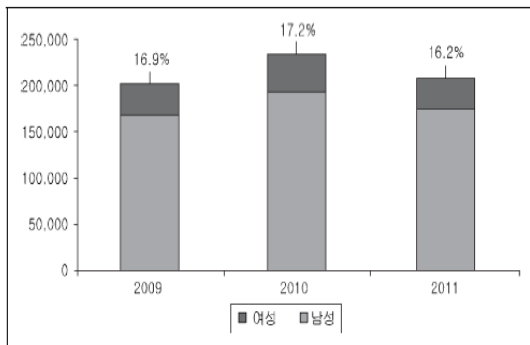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그림 7. 컴퓨터·통신 전공 졸업자 현황 및 비중 추이

이에 따라 전체에서 컴퓨터통신 전공 졸업자의 비중도 2009년 7.1%에서 2012년 6.0%로 감소하였다. 감소세는 전문대학이 7.8%에서 6.4%로 하락하였으며, 대학교는 6.8%에서 5.8%로 감소하였다. 일반대학원은 5.5%에서 2011년 6.0%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 다시 5.5%로 다시 감소한 상황이다.

그림 8은 컴퓨터·통신 전공 졸업자 대비 여성인력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졸업자의 여성 비중(2012년 기준)을 보면, 전체 전공의 경우 여성 졸업자의 비중이 51.1%로 남성보다 다소 높은 반면, 공학전공의 경우 여성 인력의 비중은 17.7% 수준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

그림 8.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종사자의 여성인력비중

컴퓨터 통신 전공의 경우 공학대비 여성인력의 비중이 다소 높은 22.6%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경우 여성 인력의 비중이 모두 23.4%로 공학 전공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대학원의 경우 여성인력의 비중이 공학의 16.5%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컴퓨터·통신 등 IT 학과의 졸업자 감소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양적인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측면보다는 창의적인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줄어들어 있다.

실제로 저급인력을 중심으로 양적인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는 한편,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수요 초과 현상이 발생하는 질적인 미스매치 가 심화되는 상황속에서 컴퓨터·통신 학과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및 이들 학과가 진출 할 수 있는 산업 및 직업에 대한 비전 제시 등 개선노력을 통해 유능한 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 컴퓨터·통신 졸업자의 경우 석박사급 고급인력에서의 비중이 공학대비 매우 낮고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은 정책적 개선의 필요가 있다.

#### IV. 여성공학인력 육성 정책 및 현황

##### 4.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정책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여성 과학기술자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였다. 2000년에는 여성과학자 연구개발 전담 지원사업이 시작되었고 2001년에는 여학생 친화적 과학교육 프로그램(WISE)이 실시되고, 여성 과학기술 인력 DB 구축, 여성과학기술 인력채용 목표제 도입이 이루어졌다[4]. 이어 2002년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법률에 의거하여 2004년에는 제 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WIST)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공학기술인력양성사업(WATCH 21)과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WIE) 이 추진되어 운영되다가 제 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는 2011년에 출범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WISET)가 총괄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5-6].

##### 4.2.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현황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인 WISET은 2011년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 및 기회기능을 강화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4W: WIST, WISE, WIE, WATCH 21))을 효율적으로 연계·통합·추진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7].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는 그림 8과 같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과학기술에서 여성의 가치를 창출하고 특화된 경쟁력을 도출하여 사회와 개인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고자 여성과학기술인의 전 생애주기를 통하여 육성과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종합적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8. WISET의 역할

WISET에서 주도하는 주요사업으로는 크게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과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사업으로 나뉘어 수행된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사업에서는 제도정책운영, 연구활동 지원, R&D 경력복귀지원, 교육훈련상당프로그램, 지식정보지원 및 연대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현재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활동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과학기술분야활동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사업에서는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여학생 전공능력강화 및 여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등을 통해 여·중고생들에게는 공학분야로의 진학을 유도하도록 하며, 여대학생에게는 전공능력 강화 및 소프트스킬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여대학원생과의 팀제 연구를 통해 이공계분야 여학생이 석·박사 진학을 유도하고 고급 인적자원으로 양성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WISET 은 그림 9와 같이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및 대경강원권으로 나누어 특정 대학교를 운영주체로 하여 16개의 권역 및 지역사업단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권역사업단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사업단에서 이공계 여성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이공계여성인재 육성사업은 그림 8에서와 같이 다시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뉜다[8].

초기에는 이학계열 여성인재 육성에 많은 투자가 있었으나 2012년부터 공학계열 여성인재 육성으로 정책이 선회되었으며 특히 2013년부터는 ICT분야 및 일반 공학분야로 나누어 공학계열 인재 육성을 진행하고 있어 ICT 분야의 이해 및 참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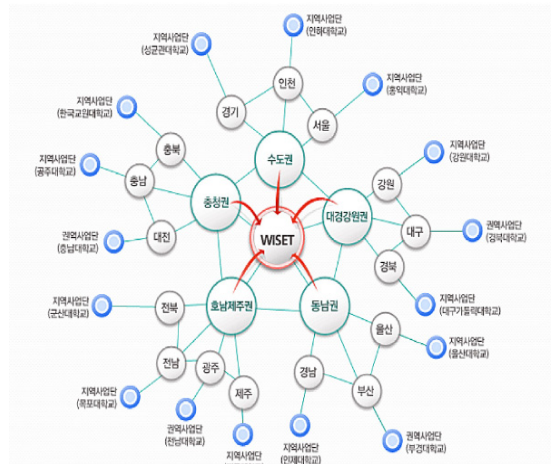


그림 9. WISET 설치 현황

##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ICT 기술발전을 위해 풍부하고 섬세한 사고를 가진 여성인재의 육성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ICT 산업은 최근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단순 전산직, 통신단말 제조 및 유지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전반의 다양한 이슈들과 결합된 서비스중심의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변모하는 환경속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인력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은 다양성·창의성에 기반한 ICT 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ICT 여성과 관련된 고용정책의 방향이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IT의 전문기술직이라는 속성은 여성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산업적 속성이 강한 국내 기업문화에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내 유교에 뿌리

는 둔 남녀차별, 남성의 군대문화 및 ICT 여성동료의 부재 등이 여성의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여성 우호적인 환경 및 네트워크 제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꾸준한 공학여성지원정책을 통해 초·중·고 단계에서 여학생들이 ICT기술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그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 ICT 분야의 경제활동에 참가하거나 고급인적자원으로 양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최계영, “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추진 방향”, KISDI 프리미엄리포트, 13-02, 2013

[2] 이경남, “ICT 부문 여성 인력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규보고서, 제 25권, 14호, 통권 559호, 2013

[3] 김태은, “여성과 ICT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추이와 함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규보고서, 제 25권 6호 통권 551호, 2013

[4] 주재선 외, “2011 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 32, 2011

[5]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 기본계획(안)

[6] 교육과학기술부(2012),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법인화 추진방향(안)

[7]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www.wiset.re.kr](http://www.wiset.re.kr),

[8]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2011



**이부형(Boo-Hyung Lee)**

1998년: 숭실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1998년 ~현재: 곧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2011년 ~2012년: 미국 PSU Visiting Scholar  
 2006년 ~ 2011년: WISE 충남지역 사업단 참여 연구원 및 멘토  
 2011년~현재: WISET 충남지역사업단 부단장  
 ※관심분야: 실시간 영상처리, 물체인식, 로봇비전, 여성공학



**송은지(Eun-Jee Song)**

1984년 : 숙명여자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1991년 : 일본 나고야(名古屋) 국립대학 정보공학과 (공학박사)  
 1996년 ~ 현재 : 남서울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관심분야: IT융합, 빅데이터, 수치해석